

미국의 도서관직 교육

라버트·버제스

미국에서의 최초의 도서관학교의 창립은 1887년 Columbia 대학교에서 Melvil Dewey 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학교 설립에는 두 가지 의의있는 결정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학교를 설립할때나 이 이후의 여러학교를 설립함에 있어서 미국의 사서들은 실무를 통한 훈련 (apprentice training) 보다 전문적인 학교를 통하여 사서를 교육해야함을 결의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론적인것 보다도 실습적인 교과과정을 두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상의 두가지 점에 대해서 각각 간단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많은 도서관이 도서관원의 개별적 실무실습제도에 의한 훈련을 지양하고 매년 새 고용인들을 훈련하기 위해 지방적으로 조직된 학교에 보내기로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에 맞먹는 기관으로서는 국립도서관에 의해서 운영된 구국립도서관학교를 들수 있겠습니다. 이들 훈련장습은 비교적 큰 도서관에 의해서 운영되었는데 여러 작은 도서관에서 관원들을 보내어 공부시켰으며, 얼마후엔 특정한 일자리에 대한 약속이 없는 학생들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지원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입학조건을 점차 높이게 되었고, Columbia, Chicago, California, Albany, Peabody 및 Illinois 와 같은 여러곳에서는 사범, 의학, 법률등의 학교와 더불어 예속된 도서관으로 부터 근처의 대학교로 옮겨 갔습니다.

오늘날 전문적인 학교에서는 보통 입학전에 대학학위를 요구하는데, 도서관학교도 곧 뒤이어 이런 형태를 가추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미국에서의 도서관교육은 대체로 대학원 수준의 전문적교육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직은 어느정도 예외적입니다; 미국의 여러주에서는 학교 사서들이 교사와 똑같은 방식의 교육을 받으며 4년동안에 그들의 기본교육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곳에서는 특히 Peabody 대학에서는 학교사서가 교육 전문가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들은 학급교사로서써 사년간의 기본교육을 마친후에 다시 일년간의 특정한 도서관 교육을 받습니다. 이 대학후의 과정을 위해서 도서관학교로 오는 이들중의 대다수가 교수에 있어서 도서관의 유용성을 깨달은 경험있는 교사층입니다. 이들은 일반 교사직에서 교육 전문직 즉 지도와 학습자리에 대한 전문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적이어서 그룹으로 조직된 실무실습반이 있었다면 그 정도를 면치 못할 것이었습니다. 교과중에도, 한국의 시도에 해당되는 도서관장, (목록을 필서했기 때문입니다만) 제본법, 출판할 도서목록 편찬하기 등의 기술도 포함되어 있었읍니다.

그 당시로 부터 오늘날까지의 전환을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볼때 양서으로 부터 교육으로, 또한 실무로부터 이론으로의 전환으로 특색 지을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에게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왼손으로 매듭 맺는것을 반드시 배워야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부수적인 것임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매듭 매기틀 전혀 불필요케하는 감자(Clamp)의 발전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입니다. 도서관학교들도 도서관의 직접적 요구에 응하도록 곧 일자리로 배치할 사람들을 양성하던것이 도서관학 자체의 기구를 강화할수 있는 사서들, 즉 비도서자로,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카드, 저장된 지식의 기계적 재현의 시대에 있어서 도서관이 어떠한 과정을 밟아 발전해 나갈것인지 결정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훈련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원의 교육은 실무적인 면에 치중해서 계속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 실제적인 면 까지도 변화를 가져왔읍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서관실제 운영면에 나타나는 변화에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과거 십여년 동안에는 사서들은 수서, 보존, 관리, 분류, 편목 및 도서보관 등의 기술, 또한 서목편찬이나 잡지색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도서관조직에 관여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기술이 아직도 중요하며 한국같은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의 도서관 사서는 우선 보존자라기 보다 오히려 교육자입니다. 아무도 책의 소중한 보존을 통해서는 일찌기 교육받지 못하고 책이 사용중에 남아짐을 통하여만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현대의 학교 사서적에게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 됩니다.

- 1) 젊은이들을 위한 현대 및 고전 작품에 대한 서지적인 지식과 동시에 개인에 관한 지식.
- 2) 현 교과과정의 내용 및 교수법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과, 자기가 봉사하고 있는 그 특정 학교와의 관계.
- 3) 아동, 성인 및 교육심리학에 관한 지식.
- 4) 여러가지의 주제 영역에 관한 지식(바꿔 말하면, 충분한 일반교육).

이상의 것들이 모두 특정한 도서관 기술에 관한 지식에 부가해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왜 이 모든 지식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학교 도서관 사서는 여러 틀리는 부류의 학생들의 독서를 지도 해야 하고, 거의 무한히 많은 주제들

을 연구하는 클라스(class)나 특별 그룹(groups)를 위한 자료를 선택하며; 교사나 학생들이 사용할 도서 및 비도서자료들을 선택, 평가해 줌으로써 교사들의 교수단원 전개를 도우며; 은연중에 또는 교실에서 도서관 사용법을 가르치며; 학생 도서관원의 간부 기타 학생위원을 지휘하고; 도서관과 도서관 활동을 향상 시키며; 도서관 클럽 도서 클럽, 시 클럽을 받기후 원하는 일이거나 기타 일들에 관련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활동들을 미루어 볼때, 도서선택, 편목, 분류의 일은 새로운 초점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도서관학교 학생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된 참고봉사를 위해서, 이 모든 활동들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왜 참고봉사는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학교 도서관에서 아동들의 학습에 보다 효과적인 공헌을 할수 있도록 도서관 봉사의 모든 국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즉 아동들이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배우는데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그들의 학습이 더욱 민주적이고, 더욱 창조적이며, 더욱 정력적이며, 그들이 학교를 떠난 후도 보다 잘 이용하고 보다 잘 지식을 추가해 나가도록 준비를 갖추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매우 같은 이유로 대학이나 대학교의 학습과 연구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위해 도서관 봉사를 개선합니다. 또한 특수 도서관에 있어서는 산업공장, 금융기관, 정부기관등의 목적이 더욱 잘 달성 되도록 개선이 이루어지며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자의 개별적인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족하기 위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량적 운동과 대량적 질서의 시대에 있어서도 도서관은 각 개인의 욕구들 즉 교육적인 욕구, 직업적인 욕구, 정서적인 욕구, 및 오락적인 욕구에 봉사하는 기관임에 변함없는 것입니다. 도서관원 교육의 목적은 이상과 같은 양의 도서관 봉사를 할수 있도록 사서들을 교육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필자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교수)

